

## KAL 858기 테러사건과 남북긴장관계 분석

김 학 만\*

### 목 차

- I. 서론
- II. 남북관계에 관한 이론
- III. KAL 858기 테러 사건의 사실 관계: 사건발생과 마무리(1987-1990)
- IV. KAL 858기 테러 사건에 따른 남북긴장관계분석
- V. 결론

### 〔 논문 요약 〕

남북관계는 남북교류에서 나타나는 최고 엘리트들의 사상과 활동을 통해 정리할 수도 있고, 중간 실무자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일반 대중들의 삶의 궤적을 통해 추적할 수도 있다. 그동안 이렇게 다양한 남북관계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주제에 관심을 갖고, 정리·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해왔으나, 대한항공 858기 테러사건을 다룬 기존의 학술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기존의 경향에서 벗어나,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KAL 858기 테러사건의 맥락성을 파악하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새로운 관점에서 기술된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과 연계된 남북관계의 악순환 고리를 분석·검토해보고자 한다.

1987년에 있었던 KAL 858기 테러사건은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남북관계에서 커다란 획을 긋는 또 하나의 북한의 테러이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에도 북한이 공격포옹(hit and clinch)정책의 반복 경향에 맞는 행동을 할지는 미지수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구태의연한 냉전적 정책을 지속하기에는 그들의 경제사정이 너무 열악하고, 향후에는 남한의 어떤 정권이 등장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의 반복적 대남 정책을 발전적 대남 정책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고안해 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남북관계, 858기 테러사건, 공격포옹

\* 우송대학교 교수

## I. 서 론

남북관계의 연구는 한반도의 남과 북에 각기 다른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등장하여 협력과 갈등의 역사를 공존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는 단순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남북간의 실제로써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해방과 분단 이후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간 갈등 및 대립, 혹은 짧은 기간이나마 화해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성립되고, 이를 성찰·비판하는 모습으로 남북관계사가 쓰여져 왔다.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는 정치학의 일부이면서 또한,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법학, 문학, 어학의 영역이기도 하다. 현재 통일연구원, 외교안보원, 세종연구소와 전국 주요 대학의 정치외교학과, 국제학부, 북한학과와 연구진들이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남북관계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즉 남북관계는 남북교류를 최고 엘리트들의 사상과 활동을 통해 정리할 수도 있고, 중간 실무자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일반 대중들의 삶의 궤적을 통해 추적할 수도 있다. 또 정치, 안보적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환경, 사회, 개인, 교통, 통신, 경제, 문화, 방송 등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그동안 이렇게 다양하고 다층적인 남북관계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주제에 관심을 갖고, 정리,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해왔으나,<sup>1)</sup> 대한항공 858기 테러사건을 다룬 기존의 학술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sup>2)</sup>.

대한항공 858기 테러사건의 검토는 이 사건을 부분적으로나마 다루고자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로는 대한항공 858기 테러사건을 다룬 연구들은 거의 모두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서술할 뿐, 그 이상의 논의는 전개하지 못해왔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테러나 항공 사고의 사례로서 이 사건을 언급할 뿐, 사건의 영향이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그 범위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북한의 남한에 대한 테러의 사례로서 언급하는 경우다. 둘째, 이 사건을 국제법 차원에서 설명하는 경우이며, 세부적으로는 항공기 안전 대책 분야, 대통령 선거 관련 분야, 북한의 테러지원국의 문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서 이 사건이 제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1) 우승지, “남북관계 연구: 검토와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46집 특집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p.160.

2) 박강성주, “대한항공 858기 사건의 공론화 과정과 영향에 관한 연구: 분단권력의 관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3.

결국, 대다수의 연구는 필요에 따라 대한항공기 858기 테러사건을 간단히 언급하거나 안기부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기존의 경향에서 벗어나,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 논문의 사건 대상이 되는 KAL 858기 테러 사건의 맥락성을 파악하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새로운 관점에서 기술된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과 연계된 남북관계의 악순환 고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의 범위로는 대한항공 858기 테러사건과 관련된 남북관계로만 한정 지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의 심층분석을 위해 연구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진행에 따라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및 대한항공 858기 테러사건에 의한 최근의 남북갈등 등은 논하지 않기로 하겠다.

## II. 남북관계에 관한 이론

60여년에 달하는 남북관계사는 국제정치학자들에게 국제정치론과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였다.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종종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합리주의 등의 이론적 틀 속에서 남북관계의 역동성과 같은 의미를 발견하고자 시도했다. 또한 안보딜레마를 강조하는 현실주의, 상호 의존, 상호이익, 협력의 제도화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정체성의 변화를 주목하는 구성주의 외에도 분단체제론, 특수관계론, 비교정치론, 분단질서론, 역사주의적 시각의 관점에서 남북관계가 연구되고 있다.<sup>3)</sup>

본 연구에서는 남북관계를 숙적관계로 전제하고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따라 악순환고리를 살펴보고자 이에 대한 이론과 전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sup>4)</sup>

### 1. 숙적관계로서의 남북관계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서로 숙적(rival)으로 보는 숙적관계(rivalry)로 요약된다. 한 쌍의 숙적으로 구성되는 숙적관계는 경쟁자 신분(competitor

3) 구갑우, “남북한 관계의 이론들: 분류와 비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남북한 관계론』 (과주: 한울, 2005).

4) 우승지, “남북한 관계 60년 분석: 1948-2008”,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2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8); 전현준, 『북한의 대남정책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2).

status),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 적군의 지위(enemy status)의 세 구성요소를 공유하고 있다.<sup>5)</sup> 두 숙적들은 상대방을 안보상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치적 영향력 또는 종교의 확산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나 영토 또는 자원과 같은 유형의 자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갈등적 관계에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숙적의 탄생과 소멸은 제국의 명멸만큼이나 중요한 의미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sup>6)</sup>

숙적끼리의 상호작용에는 어느 국가간의 상호관계와는 차별되는 특별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숙적은 상대방의 행위와 전략을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며, 정형화된 이미지의 틀을 갖고 상대의 외교행위에 의미를 부여한다. 서로에 대한 편견은 숙적 사이의 갈등을 상승(escalation)시키는 윤희유 역할을 하기도 한다. 숙적관계에 있는 두 국가는 다른 상황에 있는 국가군(群)에 비해 무력충돌이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7)</sup>

한번 형성된 숙적관계는 반복과 상승을 거쳐 중독(addiction)의 면모를 지니게 된다. 즉, 숙적간 상호작용의 현재는 과거에 구속되며, 현재는 또한 미래를 상당 부분 규정하게 된다. 학습과 사회화과정을 통해 숙적관계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세습되며, 그러한 차원에서 지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숙적 관계의 모드(mode)는 비교적 길게 지속되는 안정성을 가지나, 정치적 충격과 같은 외부의 변수가 작용하면 평형이 깨어지고 한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새로운 균형점을 찾게 된다. 숙적관계의 기본적 성격은 점진적으로 변화하기보다 불규칙적으로 지속과 급변의 순환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숙적끼리의 상호작용은 분쟁, 갈등, 전쟁을 동반하기 마련이나 때로는 데탕트, 긴장완화, 화해의 기간이 있을 수도 있다. 숙적관계는 탄생, 성장, 성숙, 쇠퇴 또는 소멸의 진화적 과정을 거친다. 숙적 관계는 때로 전쟁, 내전, 쿠데타 등 국제적 또는 국내적 사변의 영향으로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숙적관계가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즉, 전략적 이해 관계의 변화, 평화 지도자의 등장, 외교적 협상과 흥정 등에 의해

5) Thompson, William R. "Identifying Rivals and Rivalries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5, (2001), p.560.

6) 전쟁과 평화의 외교사는 복수(複數)의 숙적들의 흥망성쇠의 역사(歷史) 또는 적자생존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7) Vasquez, John A. "Distinguishing Rivals That Go to War from Those That Do Not: A Quantitative Comparative Case Study of the Two Paths to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0, (1996), pp.531-558; Rasler, Karen and Thompson, William R. "Explaining Rivalry Escalation to War: Space, Position, and Contiguity in the Major Power Subsyste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4, (2000), pp.503-530.

풀리기도 한다. 숙적 관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른 위협 또는 국내적 문제에 몰두한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무관심 속에 천천히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숙적관계의 탄생과 소멸에는 정치적 충격(political shock)이 긴요하게 작용을 한다. 국제체제의 진화, 체제의 기본 단위의 성격 변화(예를 들면, 도시국가에서 민족국가로의 변화 등), 제국의 탄생과 소멸, 숙적관계의 생로변사에 외부의 충격이 주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숙적관계는 갈등, 협력, 위기, 전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사(生死)의 주기를 갖고 있다. 즉 숙적은 서로를 국가안보의 치명적인 위협 요소로 간주하며 한번 형성된 상대방에 대한 기대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기대의 변화(expectancy revision)는 충격을 필요로 하며, 진화기대이론은 유형상 ①외적 위협 인식(external threat perception)의 변화, ②레짐 성향 또는 전략(regime orientation/strategy)의 변화, ③경쟁 능력(competitive ability)의 변화, ④국내 자원의 위기(domestic resource crisis)를 중요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충격에 의해 남북 숙적 관계의 탄생과 갈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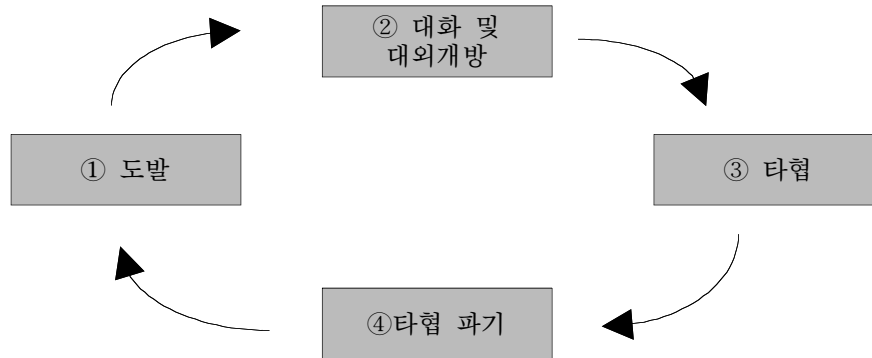
## 2. 남북관계의 악순환 고리

한국 전쟁 이후 조성된 남북간 긴장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완화되었다. 남북대화 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을 시작으로 물꼬가 트인 남북관계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85년 남북이산가족 상봉,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등으로 큰 물줄기가 이어져 왔다.

우리는 북한의 행태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① 중요한 남북간 타협 전에는 북한의 도발(테러 등)이 있었다. ② 남한에 대한 도발 이후 이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의 대화 제의가 등장하고, 남한은 이를 그대로 또는 수정하여 수락 하였다. ③ 남북대화가 시작되면 우여곡절을 거치지만 타협이 이루어졌다. ④ 북한은 남북대화 와 거의 동시에 대외개방 정책을 도입하였다. ⑤ 타협은 이내 중지되거나 파기 되었던 현상 등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8) 우승지, “남북한 관계 60년 분석: 1948-2008”,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2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8); 전현준, 『북한의 대남정책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123-125.

〈그림 1〉 남북관계에서의 악순환 고리



출처 : 전현준, 2002: 4

이처럼, 북한의 대남정책은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바, 그것은 무력도발 → 대화제의 → 타협 및 대화, 대외개방 → 대화 파기 및 중지 → 무력도발이라는 순환(cycle)이다. 요컨대 북한 대남 정책의 특징은 대남 공격 포용 정책의 반복 경향(tendency)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 Ⅲ. KAL 858기 테러 사건의 사실 관계: 사건발생과 마무리(1987-1990)

대한항공 858기 테러사건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자료를 보면 안기부(국정원) 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정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공론화 관점에서 기술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건발생과 마무리로 한정지어 살펴보고자 한다.<sup>10)</sup> 이는 본 연구의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 1. 사건의 발생과 수사결과

이 사건은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기가 실종되면서 시작된다. 대한항공의 실

9) 전현준, 『북한의 대남정책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3-4.

10) 박강성주, 대한항공 858기 사건의 공론화 과정과 영향에 관한 연구: 분단권력의 관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이 석사학위논문에서는 사건발생과 마무리, 김현희의 활동과 잠적, 실제적 진실 공방, 진상규명 활동의 본격화, 공식적 재조사의 실시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건 발생과 마무리로 한정지어 살펴봄.

중은 그 자체가 갑작스러운 것이었고 대통령 선거 등 국내의 민감한 정세속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받게 된다.

사건 발생 초기,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은 실종원인을 찾는데 있었다. 그러던 중, 12월 1일 바레인에서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던 두 사람이 음독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간다. 일본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의심을 받던 두 사람은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로 알려진 이들이었다.<sup>11)</sup> 사건 용의자인 마유미가 자살을 시도하다 검거되자 그가 테러범인일 수 있다는 추측이 굳어지는 동시에 북한의 개입설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대한항공은 북한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sup>12)</sup>

그러던 중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12월 15일, 테러범으로 알려진 김현희가 바레인에서 서울로 압송된다. 김현희가 서울로 압송되자 거의 모든 언론에 이 사실이 크게 보도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은 김현희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고, 정부에서는 김현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듬해 1988년 1월 15일 안기부는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그 내용은 대한항공 테러 사건은 88 서울 올림픽 방해 등을 목적으로 “북괴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자행된 가공할 만행”이라는 것이었다. 안기부의 수사발표에 따라 이 사건은 북한의 테러 공작으로 규정되었고 언론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발표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한편, 북측은 안기부 수사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 2. 대북제재조치와 김현희 사법처리

공식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사건이 북한의 테러로 결론지어짐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1988년 1월 20일, 미국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게 된다. 북한으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처음 오르게 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 외교관과의 교류지침을 철회하고 북한인의 미국 입국 제한을 강화하며 경제제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북측은 이에 맞서 미

11) 신이치는 음독자살을 기도하여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마유미의 경우는 자살에 실패하였다.

12)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사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이 성명은 당시 공론화 과정에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국 국적인 입국을 불허하고 유골문제 협상을 중단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발표한다. 미국에 이어 일본도 1988년 1월 26일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하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를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1988년 2월 들어 한국과 일본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바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을 규탄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은 이에 대해서 규탄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결국 유엔안보리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없이 막을 내리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도 사건의 책임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반공궐기대회(반공연맹주체)가 열려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sup>13)</sup> 이러한 궐기대회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대열의 맨앞에서 함께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어서 법적인 차원의 논의가 전개되었다. 바로 테러범으로 알려진 김현희에 대해 사법처리가 시작된 것이다. 1989년 2월 김현희에 대한 검찰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그는 살인죄,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받아 불구속 기소된다. 사실 사법처리와 관련해서는 초기부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사형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그 뒤 김현희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사형선고를 받았고, 마지막 대법에서 사형이 확정되기에 이른다.<sup>14)</sup>

그런데, 그렇게 사형을 선고 받은 김현희는 곧바로 특별사면을 받게 된다. 당시 최병렬 공보처 장관은 김현희는 KAL기 테러사건의 진상을 생생하게 증언해 줄 유일한 생존자로 수사와 재판이 허위날조된 것이라는 흑색정치선전을 분쇄하고 북한 공산집단의 폭력성과 침략적 근성을 생생하게 입증할 역사의 산증인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사면 조치를 발표한다. 이로써 1987년 11월 29일에 발생한 이 사건은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김현희에 대한 사면을 끝으로 공식적으로 마무리되기에 이른다.<sup>15)</sup>

13)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1987년 12월 14일의 경우,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10만여명의 사람이 모여 대한항공기 테러사건의 규탄대회를 가졌다.

14) 1심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1989년 4월 25일에,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해 7월 22일에,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에서의 3심은 1990년 3월 27일에 확정 판결되었다.

15)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대학생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아울러 사건의 의혹을 다룬 내용의 책을 출판한 혐의로 출판사의 사장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그러는 한편으로 안기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마유미라는 영화가 제작 상영되기도 하였다. 이 영화는 당시 사건에 대한 공판이 끝나기도 전에 김현희 역의 배우가 정해지는 등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영화 마유미는 아카데미상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에 한국 후보작으로 출품되기도 하였다.

## IV. KAL 858기 테러 사건에 따른 남북긴장관계분석

### 1. 당시의 시대적 배경 : 신냉전기

1970년대는 미국 사회에 자유와 흑인 인권이 신장된 시기인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절대적 국력이 하강한 시기였다. 베트남전쟁의 상처, 닉슨 대통령의 불명예 사임, 이란의 미국인 인질 사건 등은 미국인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1981년 보수적 성향의 레이건(Ronald Reagan)이 이끄는 공화당 정권이 등장하여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명명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이념대결을 펼쳤다. 1980년대 전반기에 펼쳐진 신냉전기는 1985년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등장과 함께 그 변화가 예고되었다.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를 고수한 채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개혁)'와 '글라스노스트(glasnost: 개방)'를 통해 소련체제를 발전시키려 했으나 결국은 실패했다.

신냉전의 외적 환경 아래 한반도의 이남에서는 유신체제의 뒤를 이어 군부실력자들이 정권을 장악하였고, 이북에서는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의 정권이양이 공식화되었다. 이러한 환경속에 남과 북 서로에 대한 위협인식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양 정권은 모두 남북 숙적 관계의 평화적 해결보다는 지속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1980년대는 한반도에서 대결과 대화가 병행된 시기였다. 10.26과 12.12를 거치면서 한국의 정국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북한은 남쪽을 향해 적극적인 대화 제의를 내놓았다.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바라는 것 보다는 한국의 정권을 테스트해 보려는 의도가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0년 초 북한은 이종욱 정무원 총리와 김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대남 편지 공세를 펼쳤다. 이후 남북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10회 정도 이루어져왔다.

신군부를 이끌던 전두환 소장이 정권을 잡은 후 한국은 1981년 1월 12일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 방문, 6월 5일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제의 등 적극적 대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테러 테러사건, 1984년 최은희·신상옥 남북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급속히 긴장상태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비교적 활발한 대화가 진행되었다. 제23회 LA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과, 참가를 위한 남북 체육회담이 1984년에 개최되었고, 88 서울 올림픽을 주제로 체육회담이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열렸다. 1984년 9월 한국에 수재가 발생하자, 북한이 수해물자 인도를 제안하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여 남북관계에 훈풍이 돌기도 하였다. 1984

년에는 남북경제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이 성사되었고, 이듬해는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 방문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1986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대화가 중단되었고, 1987년 KAL기 테러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다.<sup>16)</sup>

신냉전기의 남과 북은 대결과 대화를 병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 대화는 일시적 방편에 머물고, 근본적인 남북관계의 개선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전두환 정권과 김일성 정권은 각기 나름대로의 계산과 필요에 의해서 남북관계를 전개시켰고, 여기에는 주로 국내외 청중을 대상으로 한 선전적, 정치적 효과가 큰 몫을 차지했다. 군부통치를 연장한 전두환 정권과 권력 이양을 앞둔 김일성 정권에게 여전히 상대방은 안보상 위협이었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쪽의 이해관계의 골을 매우기는 역부족이었다.

1980년대는 남북한 사이에 힘의 불균등이 심화된 시기였다. 군부독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외지향적인 자본주의 경제는 양적인 성장을 이룩해 나가는 사이에 폐쇄적이고 비능률적인 공산주의를 고집한 북한의 경제는 내부로부터 정체와 퇴보의 고질병을 앓게 되었다.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드러난 북한 경제 붕괴의 조짐이 이미 이때부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쪽으로 경쟁능력의 균형이 기우는 동시에 한국은 민주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한국의 민주화로 한반도의 남쪽에는 더 이상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정권의 정통성의 기반으로 삼을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한 변화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7)</sup>

〈 표 1〉 신냉전기 남북관계의 주요 특징 및 사건 정리

시기구분	한국의 대북노선	북한의 내남노선	주요사건	특징
신냉전기	대결과 대화의 병행	대결과 대화의 병행	북한의 대남 수해지원, 미얀마 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테러사건	전두환 군부통치 연장, 한국의 점진적 민주화

출처 : 우승지, 2008: 128 발췌함.

16) 김계동, 『남북한 체제통합론: 이론·역사·정책·경험』 (서울: 명인문화사, 2006), pp.97-101.

17) 우승지, “남북한 관계 60년 분석: 1948-2008”,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2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8), pp.128.

## 2. 속적관계로써의 남북긴장관계분석

### 1)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는 직접적으로 남한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남북관계의 하나로 간주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12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대선을 보름 남짓 앞둔 11월 29일에 대한항공기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아울러 선거를 하루 앞둔 12월 15에 테러범으로 알려진 김현희가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이렇듯 대한항공 858기 테러사건은 대선이라는 미묘한 시점에서 발생한 민감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sup>18)</sup>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당시 선거와 어떤 관계에 있었던 것일까? 한마디로 대한항공 858기 테러사건은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안보와 안정을 중시하는 일부 유권자들의 표가 여당 후보에게 극적으로 돌아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준표는 선거와 북풍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한항공 858기 테러사건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례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특히 김현희가 대선 하루 전에 서울로 압송된 것은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하나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19)</sup> 바로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대공심리를 자극한 이 사건은 여당 후보인 노태우의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의미이다.<sup>20)</sup> 아울러 당시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은 김현희씨가 우리의 1백만표를 빼앗아 갔다며 대한항공 858기 테러사건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1)</sup>

이후 대한항공 858기 테러사건은 선거 때만 되면 문제가 되는 '북풍'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특히, 1998년 10월 안기부는 국민들이 선거때마다 북한의 불순책동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며 그로 인해 당시 집권당이 항상 어부지리를 얻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사례로 대한항공기 테러 사건을 들고 있다. 또한 언론의 경

18) 한반도의 정세를 대한항공 858기 테러사건 당시 발생한 사건 등을 속적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박강성주(2005), 대한항공 858기 사건의 공론화 과정과 영향에 관한 연구: 분단권력의 관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들 일부 발췌함.

19) 정준표, "북풍의 정치학: 선거와 북풍 변수", 『한국과 국제정치』, 제14권 제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8), pp.124-125.

20) 이종석, "대통령 선거와 북한-남북한 적대적 의존 관계와 변화가능성", 『역사비평』 제60호 (역사문제연구소, 2002), p.106.

21) 국민일보, 1992년 11월 30일자.

〈동북아연구〉

우도 주요 선거를 앞두고 북한 문제가 돌발적인 변수가 된 적이 있다며 이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sup>22)</sup>

## 2) 상호 비방

KAL 858기 테러 사건으로 남북이 상대방을 서로 강하게 비난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먼저 남측은 안기부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북괴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자행된 가공할 만행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정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야만적인 테러 행위를 저지른 북한이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포함하여 응징을 받지 않고는 결코 그대로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북측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아울러 국방부 차원에서 북에 대한 군사적 응징 관련 대책이 검토되고 전군에는 특별 경계령이 내려졌다.<sup>23)</sup>

이에 대해 북측 역시 격렬한 어투로 남측에 맞서게 되었다. 북측은 안기부의 발표에 대해 수사결과라는 것은 철두철미 거짓과 기만과 모순으로 엮여진 날조품이라며 남측을 격렬하게 비난하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북측의 대응은 사건이 일어난 뒤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북한 관련설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기 시작했고, 이는 테러범으로 알려진 김현희가 음독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러자 북측은 괴뢰들의 상투적인 반공모략 소동은 저지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리고 남측이 이 사건을 북측과 연결시켜서 광란적인 반공대별 소동을 연출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결국, 남과 북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전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을 격렬히 비난했던 것이다.

## 3) 올림픽 공동개최 무산

1981년 9월, 한국은 88올림픽 유치를 확정짓게 되었다.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중재로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개최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 2월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올림픽 공동개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체육회담의 개최를 제의한바 있다. 이어 북한은 같은 해 7월 서울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주장하였다. 한편, 남과 북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스위스 로잔에서 1985년 10월, 1986년 1월, 6월, 그리고 1987년 7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회담을 갖게 되었다.

22) 『국민일보』, 1992년 11월 30일자; 『한겨레신문』, 1994년 4월 7일자; 『동아일보』, 1997년 2월 14일자; 『경향신문』, 1997년 10월 9일자.

23) 함택영, 『국가안보정치경제학』 (서울: 법문사, 1998), p.190.

그 과정에서 국제올림픽 위원회는 4종목의 경기를 북한에서 치르게 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중재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올림픽 전 경기 종목의 1/3, 즉 8개 종목의 배정을 요구했다.<sup>24)</sup>

이렇게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기 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개최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1988년 1월 12일, 북한은 올림픽과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성명을 통해 남조선이 단독으로 강행하려는 올림픽 경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24차 올림픽경기 대회 참가 신청을 낼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앞으로 북남연석회의가 열려 올림픽 공동주최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다시 북측의 입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올림픽 신청 마감일을 이틀 앞둔 1988년 1월 15일 한국은 KAL 858기 테러사건에 대한 공식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대한항공기 테러 사건이 북측에 의한 테러라고 발표된 상황에서, 그것도 북측이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테러를 감행했다는 상황에서 올림픽 공동개최가 논의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같은 해 2월 6일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공동개최를 거부하게 되었던 것이다.<sup>25)</sup>

이렇듯 대한항공기 테러사건은 올림픽 공동개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그것이 올림픽을 저지하기 위한 북측의 테러로 알려지면서 결국 남북한 공동개최는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 4) 국제무대에서의 대립

남북한은 KAL 858기 테러 사건으로 국제무대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게 된다. 무엇보다 남한이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면서 남과 북이 실제적인 진실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그리고 그에 앞서 1988년 2월 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있었던 항공법 국제회의를 통해 남한 대표는 연설의 절반이상을 대한항공 858기 테러사건에 할애하면서 북한을 비난하였다. 남측은 이 사건을 가장 극악한 테러행위였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해 3월에 있었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의에서도 남한은 안기부의 수사결과를 바탕

24) 한국개발연구원, 『서울올림픽의 국가발전적 의의』, 정책보고 87-01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87), p.33.

25) 『한국일보』, 2000년 6월 16일자.

으로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난하였다. 남한은 연설을 통해 이 테러사건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게 되었다. 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회의를 통해 대한항공 858기 테러 사건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33개 이사국 전원일치로 채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건사분석(History Event Analysis)을 정리해보면 대한항공 858기 테러 사건은 남북긴장관계와 국제테러사건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겠지만, 이 사건으로 남과 북은 더욱 이질화 되었고, 실제적인 진실을 놓고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펼쳐가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남북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남북화해의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6)27)</sup>

### 3. 남북관계의 악순환 고리 : KAL 테러 사건과 남북기본 합의서 채택의 미이행

KAL기 테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1988년 1월 1일 남한 집권자와의 대화를 희망하였다. 3월 8일에는 북한이 남북연석회의 예비회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장기간 침묵을 지키던 남한은 1988년 6월 3일 북한측에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6월 6일 남북연석회담 준비를 위해서라면 당국자 회담도 고려한다고 회답하였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12월 28일 강영훈 총리가 남북고위당국자(총리급) 회담을 제안하였고, 1989년 1월 16일 북한은 남북총리급 회담을 수락하면서 2월 8일에 차관급예비회담을 갖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갖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의제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 문제로 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역사상 최초로 남북한 총리가 남북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이 시작되었다. 1990년 9월 4일 남북고위급회담 1차회담으로부터 1992년 9월 18일 제8차 회담까지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은 역사적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 합의서는 가장 완벽한 남북한 합의서로서 이것만 잘 실천되면 사실상의

26) 박강성주, “대한항공 858기 사건의 공론화 과정과 영향에 관한 연구: 분단권력의 관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67.

27) 유엔안보리 안건 상정 및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들의 결과를 낳았고, 최근 끝나지 않는 진실공방이 일어나고 있어 남남갈등을 일부 부추기고 있는 사실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기적으로 대한항공 858기 테러사건 및 사건 마무리로 한정짓고,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미북관계로 등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논하지 않았다.

통일상태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남북고위회담은 8차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1992년 12월 19일 북한은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이인모 노인 복송,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제9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는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회주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몰려 올 수 있는 남북대화보다는 대화단절을 통한 체재 단속의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sup>28)</sup>

## V. 결 론

2차 세계대전으로 동북아에 새로운 세력균형이 탄생하였고, 새로운 질서 속에 남북관계가 탄생하였다(rivalry initiation). 일반적으로 남북숙적사이의 위협인식이 높을수록 갈등이 상승하였으며, 민주주의의 등장은 갈등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세력균형의 획득과 위협인식의 약화는 일시적이거나 화해의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남북 양쪽에 권위주의적 정권이 등장할수록 갈등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공세적인 의도를 가진 정권 쪽으로 힘의 균형이 기울었을 때가 수세적인 의도를 가진 정권 쪽으로 균형이 기울었을 때에 비해 갈등이 증폭되는 경향이 존재해왔음을 알 수 있다.

결국 KAL 858기 테러사건 발생 당시의 전후의 숙적관계를 분석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sup>29)</sup>

〈표 2〉 KAL 858기 테러사건의 정치적 충격과 전후 남북관계의 분석 결과

기간	정치적 충격(원인)				남북관계의 결과
	외적 위협 인식의 변화	레짐 성향 또는 전략의 변화	경쟁능력의 변화	국내자원의 위기	
1980년대	신냉전의 전개	한국: 군부 정권 장악 북한: 정권 이양 공식화	불균등 심화	-	갈등과 협력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냉전 체제의 해체	한국: 북방정책으로 북한 끌어안기 북한: 방어적 대화 전략	한국의 대북 경쟁능력 우위	북한 심각한 경제난	남북 긴장 완화 추구

출처 : 우승지, 2008: 152 발췌함.

28) 전현준, 『북한의 대남정책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10-11.

29) 우승지, “남북한 관계 60년 분석: 1948-2008”,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2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8), pp.151-152.

이는 결국, 남북관계에서 KAL 858기 테러 사건이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 등과 최근 들어 남남갈등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커다란 외부환경의 변화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KAL 858기 테러사건에 대해서는 본 사건의 특성분석을 통해 잘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학습 효과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즉 악순환적인 고리를 끊고 선순환적 고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남북관계에 있어서 악순환 고리에 따른 관계를 전제한다면, 북한의 대남 도발 후에는 대화와 대타협에 대비해야 하고, 대타협 후에는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1987년에 있었던 KAL 858기 테러사건은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남북관계에서 커다란 획을 긋는 또 하나의 북한의 테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대남 도발 이후에는 대화 및 타협에 대비해야 할 것이고, 타협 이후에는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에도 북한이 공격포옹(hit and clinch)정책의 반복 경향에 맞는 행동을 할지는 미지수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구태의연한 냉전적 정책을 지속하기에는 그들의 경제사정이 너무 열악하고, 향후에는 남한의 어떤 정권이 등장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의 반복적 대남 정책을 발전적 대남 정책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고안해 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갑우, “남북한 관계의 이론들: 분류와 비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남북한 관계론』 (과주: 한울, 2005), pp.91-108.
- 김계동, 『남북한 체제통합론: 이론·역사·정책·경험』 (서울: 명인문화사, 2006).
- 박강성주, “대한항공 858기 사건의 공론화 과정과 영향에 관한 연구: 분단권력의 관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우승지, “남북관계 연구: 검토와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46집 특집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pp.160-182.
- 우승지, “남북한 관계 60년 분석: 1948-2008”,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2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8), pp.121-156.
- 이종석, “대통령 선거와 북한-남북한 적대적 의존 관계와 변화가능성”, 『역사비평』 제60호 (역사문제연구소, 2002),
- 전현준, 『북한의 대남정책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2).

정준표, “북풍의 정치학: 선거와 북풍 변수”, 『한국과 국제정치』, 제14권, 제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8).

한국개발연구원, 『서울올림픽의 국가발전적 의의』, 정책보고 87-01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87).

함택영, 『국가안보정치경제학』 (서울: 법문사, 1998).

Rasler, Karen and Thompson, William R. “Explaining Rivalry Escalation to War: Space, Position, and Contiguity in the Major Power Subsyste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4 (2000), pp.503-530.

Thompson, William R. “Identifying Rivals and Rivalries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5 (2001), pp.557-586.

Vasquez, John A. “Distinguishing Rivals That Go to War from Those That Do Not: A Quantitative Comparative Case Study of the Two Paths to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0 (1996), pp.531-558.

경향신문, 1997년 10월 9일자.

국민일보, 1992년 11월 30일자.

동아일보, 1997년 2월 14일자.

한겨레신문, 1994년 4월 7일자.

한국일보, 2000년 6월 16일자.

## Analysis of the Bombing of Korean Air Flight 858 and the Resulting Ten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im, Hag-Man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done in a number of different way: through analyzing its people (*i.e.* by observing the ideology of their respective elites, the lives of their public officials and/or ordinary people), politics and security issues, environment, society, individuals, traffic, telecommunication, economy, culture and broadcasting. However, it is hard to find academic research done in relation to analyzing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 through impact of Bombing of Korean Air Flight 858(KAL 858)

Previous research on the bombing of KAL 858 mostly dealt with part of the incident. This is because most of the previous research merely described what has been reported in the research of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Currently calle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r NIS), they fail to develop in-depth discussion to it. In other words, the incident is merely referred as a successful example of a North Korean terror attack or an example of an airplane crash.

Also, the scope of discussion has been limited to two approaches. The first approach has been to discuss it as an example of North Korean terror against South Korea. The second has been to discuss the incident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 in detail in the field of aircraft safety, Presidential elections, North Korea's status on state terrorism lists, and North Korea's kidnapping of Japanese citizens.

Consequently, most of the research in this incident merely refer the incident for the "purpose of necessity" or repeat what has been reported by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For this reason, and in contrast to previous research of this incident, this paper intends to deal with the bombing of Korean Air Flight 858 comprehensively by looking at the various perspective of history and the background of the incident and

the resulting “vicious circle”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

The bombing of Korean 858 in 1987 is one of the landmarks of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 since the Korean War in 1950. Through this incident, we should find the wisdom against to the provocation of North Korea against South Korea.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it is not clear whether North Korea will repeat their “hit and clinch” type of policy. The reason is that even if North Korea continues their traditional cold war policies, their economy is in too much trouble to continue such policies and also it is probable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put more effort in “communicate” with North, regardless of which of the South’s political parties is in power.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to find a strategy to change North Korea’s repeating “hit and clinch” type of policy against South Korea to productive way.

Key Words :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bombing of KAL 858, Hit and clinch.

투고일 : 2011.6.28 / 심사일 : 2011.7.10 / 심사완료일 : 2011.8.28